

학회 활동 50년, 반성과 과제

이 홍 수*

[머리말]

우리 학회의 나이가 ‘선’입니다. 한국음악교육학회(연구회)가 창립된 지 어언 반세기가 되었다니 놀라움과 무거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故 정세문 전 회장님이 회보 11호('95. 6)에 창립 40주년 기념사 ‘학회 초기를 회고하며’를 써 주신 후로도 벌써 10년이 더 지나고 보니 더 그러합니다. 정 회장은 그 글에서 “초기에 선배들이 비좁고 거친 땅에 음악교육의 씨앗을 심어 작은 뿌리나마 내리게 했으니 이제 젊은 음악교육자들이 왕성하게 가지를 키우고 풍부한 잎과 꽃을 피워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그 후로 정신없이 10년을 지내고 보니 그 빠름과 한 일 적음에 화들짝 놀랐고, 어두운 음악교육 현실과 미래를 떠올리니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더욱이 50주년을,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시간적 획이라는 시각에서 보니, 오늘날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학회사(史)의 첫 반세기와 다음 반세기를 의의 있게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소임을 맡고 있고, 그러한 소임은 과거와 현재의 학교 음악교육 상황들 속에서 어느 면을 살펴보고 무엇을 발견하여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숙고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음악교육학회 고문, 한국교원대학교

[회고와 반성]

기록과 선배님들의 회고에 따르면, 우리 학회는 1956년 8월, 현재명(초대) 회장, 김성태 사무국장, 정세문 총무, 한규동 연구부장 등이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창립하고, 제1회 전국음악교사 강습회를 개최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에는 회원의 수도 적고 ‘음악교육’이라는 용어도 생소한 상태였지만, 해마다 회보 ‘음악교육’ 발간, ‘청소년음악회’ 개최,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주관, ‘음악교사강습회’ 개최,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참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폈습니다. 대체로 '61년까지는 태동기인지라 규모가 작고 활동도 미약했으며 범위 또한 제한적인 상태였지만, 회원 모두가 열성적이었고 음악교육의 국제적인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62년 10월, 정세문(2대) 회장, 민원득·장용상 부회장이 선출되면서 학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교육연구발표대회’, ‘교육자음악회’를 개최했고, '65년에는 ‘전국교사동요작곡강습회’를 열었으며, '68년 3월,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로 가입하였고, '69년에는 ‘음악교육세미나’를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요작곡강습회’에서는 나운영, 손대업, 정세문, 이계석 등 여러 작곡가들의 지도에 힘입어 많은 교사들이 동요 작곡 능력과 화성학에 관한 이해를 갖추게 되었고, 그 후 오늘날까지 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동요, 훌륭한 교재곡들이 창작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73년에는 논문집 ‘음악교육연구’ 제1집을 발간함으로써 진정한 학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78년 10월, 회칙을 개정하여 『한국음악교육학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80년 7월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연구회’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부터 83년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3~4일간씩 열린 연수회(서울, 리라초등학교)에는 해마다 400여명의 교사가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여러 대학교수들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수백 부씩 자료집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고 강의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강의했습니다.

'84년 3월, 임원 개선으로 류덕희(4대) 회장, 장창환 부회장이 선출되었는데 이 기간은 해마다 '음악교육연수회'는 개최했지만, 세미나와 음악회를 열지 못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지 못했던 다소 위축된 시기였습니다. '86년 4월에는 임원 개선으로 장창환(5대) 회장, 정문섭·이석기·신계휴 부회장이 선출되면서 회보 '음악교육'과 논문집 '음악교육연구'를 복간(제5집)하고 '음악교육세미나'와 '음악교육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90년 4월, 임원 개선으로 신계휴(6대) 회장, 이문주·이홍수 부회장이 선출되었고, 이때부터 학회 활동은 '음악교육연구' 발간과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분기별 연구발표회' 개최에 집중되었습니다. '92년(7. 26~8. 1)에는 한국음악교육협회의 요청에 따라 학회의 임원들이 국제음악교육협회 세계대회(한국음악교육협회 주최 : '70년대 후반에 조상현 회장의 요구로 대표권을 양도한 이래 협회가 한국 대표권을 행사하였음)의 운영에 참여하여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후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에 학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수 참가함으로써 다시 국제음악교육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4년 4월, 임원 개선으로 이홍수(7대) 회장, 박병춘·김준수·조효임 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음악교육연구' 발간과 '음악교육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분기별 연구발표회' 개최를 계속했고, 중단되었던 회보 '음악교육'을 발간(제9호)했습니다. 음악교육연구와 연수 이외에 당시에 점차 오락화해 가는 사회 음악 풍토와 교육과정상의 음악교과 시간 축소 경향을 우려하여 관련 기관에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96년 8월, 제27회 음악교육학술대회에서 채택된 "예술음악 및 한국음악 중심의 질 높은 음악 방송 촉구 결의문"을 3대 방송국에 보냈고, 회원과 전국의 교사, 학부모 3,741명이 서명한 "중등학교 음악과 수업 시간 적정화에 관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7(8. 10-12)에 우리 학회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 음악교육 심포지엄'을 주최(금호인력개발원)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중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200여명의 음악교육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내용의 논문 발표와 워크

숍을 열었습니다.

2000년 4월, 임원 개선으로 안재신(8대)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논문집 ‘음악교육연구’가 발간되었고, ‘학술대회 및 연수회’와 ‘분기 학술 발표회’가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02년 4월 임원 개선으로 황병훈(9대)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논문집 ‘음악교육연구’가 계속 발간되었고, ‘학술대회 및 연수회’와 ‘분기 학술 발표회’가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02년 11월에 『일본음악교육학회』와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황병훈 회장과 최은식 총무 등이 일본음악교육학회를 방문하여 양국 학회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선을 긴밀하게 협력,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03년 4월 2일, 학회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개선과 적절한 수업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당시 제기된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약화 시도’에 반대하기 위하여 ‘학교음악교육정상화 결의대회(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 주최, 경기여자고등학교 강당)’의 개최를 주도하였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43개 음악교육단체, 교사와 교수, 교원양성대학 재학생 등 87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회에서 관계당국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결의문 지지서한에는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37,539명이 서명하였습니다. 결의문과 서명서는 청와대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되었습니다.

’06년 4월 임원 개선으로 권덕원(10대)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논문집 ‘음악교육연구’가 계속 발간되고, ‘학술대회 및 연수회’와 ‘분기 학술 발표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면 과제]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학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창립 초기부터 규모가 크고 내실은 있지만 소극적이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과 부침, 위축, 성장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부문의 과거를 살펴 우리 학회가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집 ‘음악교육연구’의 발간을 보면, ’86년까지는 연구자의 수가 적고 논문 작성 경향이 일반화 되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7년부터는 해마다 제출 논문이 늘어 정기적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논문의 질과 수준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후보로 등록하여 논문집의 권위를 확인받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제출 논문이 더 많아짐으로써 한 해에 두 차례씩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집을 전체적으로 볼 때, 게재 논문의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출자가 일부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들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들로 하여금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논문을 제출하도록 널리 알리고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학술대회 및 연수회’는 음악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와 참여에 크게 이바지한 중요한 모임입니다. 학회는 창립초기부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음악교사들의 관심을 촉발했고, 특히 ’80년대 초, 4년 동안의 연수회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400백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음악교육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90년대 후반에 회원이 1,000여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그 후에도 여름방학마다 열린 연수회에 적어도 200여 명이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학술대회 및 연수회’들 중에는 참가자가 50명 안팎이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참가자 수에 크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학회 임원진의 열성과 분위기, 연수회 및 연구발표회의 주제와 내용, 대회 형태 및 치밀한 준비의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여름방학 중에 개최되었던 ‘ISME식 연구발표 형태’의 학술대회는 “연구하는 교사나 대학원 출신 또는 재학 교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일반 회원교사들에게 유익할만한 실질적인 연수의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발표 및 연수 혼합 형태’로의 수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셋째, ‘분기연구발표회’는 한 해에 3-4회에 걸쳐 교수 또는 교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귀한 모임으로, ’91년 시작된 이래 주요 활동의 하나가 되어 왔고 발표된 논문의 수준과 진지한 토론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

니다. 이 모임도 초기에 20~30명이 참가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최근에는 다시 20~3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까닭을 살펴보면, 교사 회원들이 보기에 ‘교수 중심, 이론 중심’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연구발표회’는 교사들의 수업 실체에 유익한 ‘구체적인 주제 선정-워크숍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분기연구발표’에서 개정시안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악과 교육과정을 ‘음악교육의 본질화와 현대화’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학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개정안을 충실하게 검토하는 일,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학회의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 과제]

오늘날 학교 음악교과의 실상과 최근에 개발된 차기 교육과정의 개정시안의 ‘교과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방법 선택’의 양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아직도 음악과가 ‘교육 이상’의 실현에 충실하게 기여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과교육이 그 근본을 회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正道·基本·合理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가 ‘철학적, 미학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음악교과’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꾸준히 하는 한 편, 음악과의 목적 및 목표, 지도 내용, 지도 방법에 관한 실제적인 부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음악과교육은 음악이론과 정보와 사실을 이해·파악·기억하고, 음향만 보면서 연주 행위만 하고 지나가는 방식의 지식과 기능/활동의 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향과 악곡, 활동으로부터 의미와 아름다움과 원리를 탐색/탐구하는 가운데 스스로 느끼고 사고하

며, 악곡의 내면에 함축된 의의와 가치를 통찰·판단하고, 탐지된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창조하게 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학회는 금년에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협력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연수의 場을 자주 만들고 많은 교사들이 널리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더욱이 다음 50년의 학회 활동을 풍성하게 하려면 임원들은 다시 창립 초기의 ‘열정의 시대’, ‘80대 초와 같은 ‘헌신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국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들과 중등학교 음악교사, 초등학교의 음악전담교사를 비롯하여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교수와 각종 교원음악단체 참여 교사, 음악교과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을 되도록 많이 회원으로 가입, 참여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 논문집에 회원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기회를 넓히고, 음악 지도에 실질적인 내용의 연수회와 워크숍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이러한 장기적,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한 예술은 영원할 것이며, 문명이 위기를 맞을 때 인류에게 예술이라는 장치가 있다.”고 말한 John Dewey의 선언처럼 ‘교육이 수행되는 한 음악교과는 존재할 것이며, 교육이 위기를 맞을 때 거기 음악교육이라는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